



스물세번째 이야기

서남아테이블, 역사 속을 걷다.

살롬! BEE KOREA에서 스리랑카, 네팔을 섬기는 서남아테이블입니다. 신경진 팀장과 김은일 부팀장과 함께 모두 20명입니다. 저희 팀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김형회 목사님과 이성애 권사님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테이블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춘택집사의 역사 해설과 함께 다녀온 소풍 이야기

6월 24일(토) BEE 기도 모임을 마친 후 서남아 테이블의 식구들과(신경진 목사, 이성애 권사, 조은남 집사, 강기형 & 이희선 집사부부, 김춘택 집사, 유미경 집사)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운동주 문학관 ~ 돈의문 구간)을 걸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을 걷기 전 먼저 사소문중 하나이고 과거 전쟁과 개발의 열풍 가운데서도 창건 당시 원형의 모습대로 가장 잘 보존되어 온 四小門중 하나인 창의문(彰義門)을 둘러보고, 운동주 문학관을 찾아 시인의 작품과 생애를 참관하였다.



창의문은 인조반정때 반정군들이 파주 장단, 연서역(연신내)과 홍제원으로 부터 군사들을 모아 능양군(후에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을 중심으로 창의문을 통해 한양도성으로 들어와서 창덕궁에 있던 광해를 몰아낸 인조반정역사의 숨결이 서린 문이다.

창의문을 둘러 본 후 우리는 길 건너 윤동주 문학관으로 향했다. 시인 윤동주는 연희 전문학교 문과 재학시절, 종로구 누상동(현, 인왕산 수성동 계곡 밑의 마을)에 있는 소설가 김송(金松, 1909~1988)의 집에서 문우(文友)이며 후배였던 정병욱과 함께 하숙생활을 하며 종종 이곳 인왕산에 올라 시정(詩情)을 다듬곤 했다고 한다. <별 헤는 밤>, <자화상>, 그리고 <또 다른 고향>등...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시들을 바로 이 시기에 씌여졌다고 한다. 윤동주 사후에 같이 하숙을 했던 후배 정병욱이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모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판하여 시인의 주옥같은 시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종로구청에서 이곳 청운수도 가압장에 윤동주가 일본 유학시 일경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후쿠오카 감옥을 형상화시켜 그의 시들과 영상을 전시하는 문학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곳을 관람하며 시인의 사진들과 생애, 시들을 통해 우리는 윤동주의 삶으로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아름다운 시적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리고 관람을 마친 후 우리는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을 경쾌하게 올라갔다.

한양도성이란 무엇인가? 한양도성은 조선시대 한성부, 한양, 서울을 나타내는 표상이었다.

1392년 개성 수창궁에서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는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하여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후 태조 5년(1396년) 음력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간(농한기), 이어 음력 8월 6일부터 9월 24일(농한기)까지 49일간, 모두 총 98일 동안 전국에서 19만 7천 4백여명을 동원하여 북악, 낙산, 남산, 인왕산(내사산) 능선을 따라서 평지는 토성으로, 산지는 석성으로 축성하였다.

한양도성은 조선의 도읍지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곽이다. 1396년 내사산(백악, 낙산, 목격, 인왕)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고 평균높이 5~8 m, 전체길이는 약 18.6km에 이른다.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양도성은 유교이념에 근거한 상징체계로 완성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4대문으로써 유교덕목을 대문 이름에 넣었다. 대문과 대문 사이에 작은 문4개 (사소문)를 두었다. 8개의 문은 한양도성의 관문이었으며, 상경(上京)과 낙향(落鄉)이 구분되는 경계이기도 했다. 성곽을 따라 걷노라면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조차 잊게 된다. 평지에 세워진 성곽이 안팎을 차단하는데 반해 한양도성의 성곽은 안과 밖을 분리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열려있었다. 성곽이 산수(山水)와 한 몸을 이루는 세계유일의 역사 도시경관이다. 평지에 네모 반듯하게 구획된 중국식 성과는 다른 조선만의 것이다.



한양도성은 곧 조선이었다. 더불어 수도, 수선, 도읍, 왕성, 궁성, 경조, 경도, 장안, 사대문안의 통칭이기도 하다. 한양도성은 서울을 나타내는 모든 용어 중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있는 명칭이다. 한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 중 하나였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파리가 10만명, 영국 런던이 15만명, 한양인구는 20만명에 육박했다. 규모로 보아도 현존하는 세계수도의 성곽 중 서울을 둘러싼 성곽이 가장 크다.

한양도성은 조선 500년 내내 성곽으로 둘러싸인 한성부 전체를 지칭하는 당당한 국가권력의 표상이었다. 도성 밖 10리를 나타내는 성저십리와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어 사대문안과 같은 권역을 나타내지만 의미는 훨씬 공식적이고 권위적이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인왕산을 걷고 서울 시내와 서울을 보호하며 멋진 자연 병풍처럼 펼쳐진 북한산을 한 눈에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양도성을 걸으며 성경의 느헤미야가 포로기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영적 성벽을 재건하였던 역사를 묵상하고, 이 한양도성(서울)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바로 세워지도록 모두 합심하여 기도했다.



어느덧, 내려오던 길인 돈의문 구간에서 대한매일신보의 창간언론인이자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영국인 Ernest Thomas Bethel (한국명 배설, 양화진에 문힘)의 집터와 이웃한 음악가 현재명의 생가를 보며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강기형 & 이희선 집사님 부부의 따뜻한 섬김으로 맛있게 식사와 차를 마시며 인왕산 소풍을 마쳤다.

벌써 선선한 가을이 되었으니 다시 테이블 식구들을 선동(?)하여 이번에는 북악구간(창의문~숙정문) 또는 낙산(혜화문~흥인지문)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

테이블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 김형회 목사 - 올 하반기에는 반동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항상교회 3기 일대일 양육자반을 마치고 양재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다. 남서울교회 교역자 대상으로 갈라디아서를 9월1일에 마무리하였고 9월 초에 스리랑카에서 FTS와 마가복음을 인도했다. 지금은 푸른나무교회 일대일 양육자반을 진행 중이다.
- 이성애 권사 - BEE Korea 창립 때부터 남편(고 김내헌목사)과 함께 BEE를 섬겼다. 1996년 인도자가 되어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였고 여러 권의 교재를 번역하였다. 금년 초 묵상 에세이집 "그손"을 발간하였다.
- 김승규 집사, 김은일 권사 - 행복한 부부인 두분은 올 초 케냐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와 세미나 갈라디아서, 요한복음(OBC), 그생(FA)와 남서울교회 부교역자 부부와 일대일을 하는 등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 신현승 장로- 온누리교회 선교분과 위원회에서 사역하고 아랍예배를 섬기고 있다
- 김춘택 집사-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 공동체에서 이사야서 리더로 활동한다.
- 강기형 집사, 이희선 집사-이번 학기 갈라디아서(OBC,T/L)를 섬기며 항상 기쁨의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다.



- 이숙현 자매 - 온누리교회 선교사님이 계신 곳인 시베리아(D국)부랴트 자치공화국에 이번 여름 의료팀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낮에 의료사역이 끝나면 홈케어 사역에 동참해서 현지가정을 방문하는 사역을 하였다. 부랴트가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는 민족으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다. 그 때가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 외 장필모 집사, 이광. 박소현 집사, 장원규. 김길선 집사, 조은남 집사, 이재춘집사, 박승선 집사, 이문형 집사, 이경숙 .홍종훈 집사 등이 계신다. (글쓴이:김춘택, 편집:이경주)



글쓴이 김춘택 집사는 서초 C 공동체 이며 서초C 공동체 OBC 총무 및 순장으로 있으며 BEE (서남아 테이블 소속) 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화학회사의 한국 대리점으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은 능름한 아들 (현재 평화롭게 상병으로 군 복무중), 귀여운 딸(책과 심한 전 투중인 고3),그리고 사랑스런 아내와 도란도란 잘 살고 있습니다.

BEE 소식

- 작년 시작한 섬김 프로젝트의 결과로 가나에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섬겨주시고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